미타도량 은해사 역사·사람·공간 한눈에

국립대구박물관 · 은해사 특별전
'영남의 명찰순례 II : 팔공산 은해사'
국립대구박물관 2023년 2월 19일까지

은해사의 역사와 사람 그리고 공간 조명
은해사괘불·문화재·문헌자료 등 363점
십대제자·십육나한상 등 30점 최초 공개
전시 주제 이해 돕는 다채로운 영상 마련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은해사 아미타 삼존도

국립대구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장용준)이 은해사와 공동으로 11월 8일부터 2023년 2월 19일까지 특별전 '영남의 명찰순례 Ⅱ : 팔공산 은해사'를 개최한다.

은해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어 천년을 이어온 유서 깊은 사찰로 인종의 태실수호사찰이자 아미타불을 모신 미타도량이다. 은해사의 역사와 사람 그리고 공간을 조명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은해사 괘불(보물)'과 아미타삼존도 등 은해사 소장 문화재와 각종 문헌자료 363점을 선보인다. 특히 거조사 석조오백나한상 526위 중 십대제자, 십육나한 등 30점이 처음으로 박물관에 전시된다. 거조사 나한상은 2023년 1월 15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전시는 △제1부 야단법석을 아십니까 △제2부 시작하고 연을 맺다 △제3부 만나고 모이다 △제4부 은해사를 이루다△제5부 수행하고 염원하다 총 5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제1부 '야단법석을 아십니까'는 전시의 도입부로서, 은해사 괘불이 관람객을 맞는다. 괘불은 야외의식에 모셨던 대형불화로 부처의 강림을 상징한다. 중앙홀에 걸린 괘불과 미디어타워의 연출 영상은 전시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관람객이 '팔공산 은해사' 경내로 들어왔음을 알려준다.

△제2부 '시작하고 연을 맺다'는 은해사의 창건 때부터 근대까지의 역사를 소개한다. 은해사의 옛 흔적을 찾아서 고려시대 묘지명부터 근대에 기록된 사적기까지 과거의 발자취를 돌아본다. 다음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맺었던 인연으로 왕실과 본산으로서의 인연을 살펴본다.

△제3부 '만나고 모이다'는 은해사에서 만나고 모였던 다양한 사람들을 살펴본다. 조선시대 은해사는 선비들에게 유람의 명소이자 여러 목적으로 방문했던 장소였다.

이 과정에서 시, 유산기(遊山記) 등 각종 기록을 남겼으며, 편액을 쓰기도 했다. 또한 염원을 갖고 시주한 사람들과 은해사에서 수행한 사람들, 승려장인까지, 은해사와 인연을 맺었던 대중을 조명한다.

△제4부 '수행하고 염원하다'는 은해사의 수행과 신앙을 조명한다. '거조사 석조오백나한상'은 우리와 닮은 수행자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다음으로 고려시대 거조사에서 정혜결사를 시작한 보조 지눌(1158~1210), 조선 후기 승려장인 퇴운 신겸이 필사한 경전 등을 통해서 수행처로서의 은해사를 돌아본다.

전시의 마지막에서는 추사 김정희의 '산해숭심' 현판을 만나게 된다. 현판은 '산은 높고, 바다는 깊다'라는 뜻처럼 팔공산 속 자연과 어우러지는 은해사의 공간을 함축적으로 조명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시 주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꽃과 부처(미디어타워 실감콘텐츠), 은해사를 이루는 소리, 삼라만상, 염불은 극락에 이르는 지름길, 두 부처의 만남 등 다채로운 영상을 공개한다.

은해사는 통일신라시대 809년(허덕왕 1)에 혜철국사가 해안사로 창건했다. 1270년(원종 11)에 홍진국사가 중창했고, 1275년(충렬왕 1)에는 원참이 중건했으며, 1485년(성종 16)에는 죽청과 의찬이 묘봉암을 중창했다.

1545년 인종 원년에 큰 화재가 발생해 사찰이 전소됐으며, 이듬해 1546년 명종 원년에 나라에서 하사한 보조금으로 천교화상이 지금의 장소로 법당을 옮겨 새로 절을 지었다.

이 때 법당과 비석을 조성하여 인종의 태실을 봉하고 '은해사'로 개명했다. 1563년 화재로 도량이 소실되고 이듬해에 묘진 스님이 중건했으며, 1589년 선조 22년에 법영대사가 현재의 자리에 크게 법당을 중창하고 사찰의 규모를 확장하는 일대 불사를 이루었다. 현재 은해사에는 39곳의 말사, 5곳의 포교당, 8곳의 부속암자가 있다.

은해사는 불사를 거듭하면서 여러 고승을 배출했다. 신라시대에는 우리나라 불교의 새 장을 열였던 화쟁국사 원효스님과 해동 화엄종의 초조인 의상 스님이 있고, 고려시대에는 현재 조계종의 종조인 불일 보조국사 지눌 스님, 〈삼국유사〉를 저술한 보각국사 일연 스님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홍진국사가 머문 뒤부터 선교양종의 총본산으로 사격이 고양되었고 화엄학의 대강백인 영파 성규 스님이 이곳을 중창한 뒤로는 화엄교학의 본산으로서 그 명성이 높았다. 최근에도 향곡, 운봉, 성철 스님 등 많은 선지식을 배출했다.

이번 특별전 '팔공산 은해사'는 관람객들에게 은해사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마음의 안정을 찾는 휴식처와 같은 공간으로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053)768-6051~2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희망의 노래

도솔선원 무디따합창단 찬불가 신곡발표회
12월 3일 오후 6시 서울 은평문화예술회관
'무디따' 등 신곡 17곡 전곡 함현스님 작사


선화사 도솔선원장 함현 스님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희망의 노래로 이 시대의 아픔과 함께하고, 한 곡의 음성공양이 그 아픔 속에 살아가는 대중에게 치유와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 북한산 선화사 도솔선원(선원장 함현) 무디따합창단(지휘 허철영)이 12월 3일 오후 6시 서울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찬불가 신곡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서 선보이는 신곡 찬불가는 모두 함현 스님이 작사했다.

산스크리트어로 '함께 기뻐하다'라는 뜻의 무디따합창단은 2019년 3월 31일 함현 스님이 불교문화 발전과 전법을 위해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개원한 도솔선원의 신도들로 구성됐다.

무디따합창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80여 명의 단원이 꾸준히 합창 연습을 했으며, 방역단계 완화로 그동안 미뤘던 찬불가 신곡을 처음 대중에게 선보이게 됐다. 이번 찬불가 신곡발표회는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번 신곡 발표회에는 도솔선원 선원장 함현 스님을 비롯한 도솔선원 대중과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 교계 안팎의 내외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에 이어 선원장 함현 스님의 인사말과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축사 등 간단한 개회식 후에 신곡발표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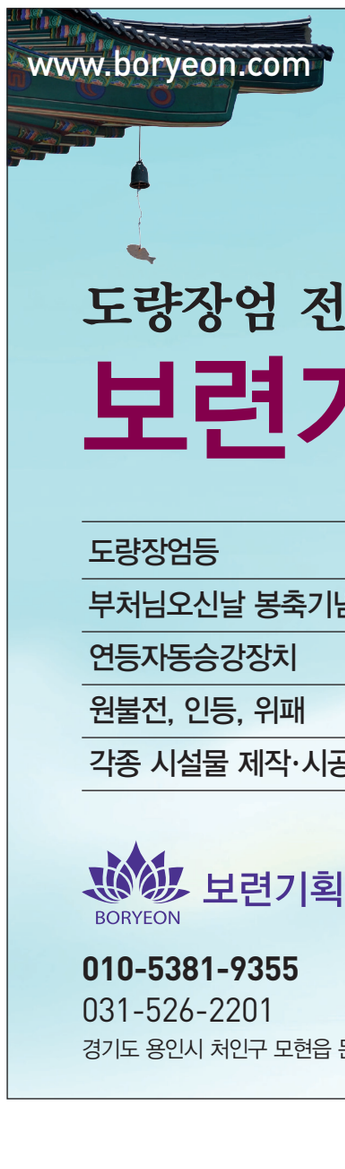
신곡발표회 1부에서는 '발원(김동환 작곡)', '무디따(한정일 작곡)', '생명의 불 생명의 꽃 아미타(조원행 작곡)', '가세 가세 가서 나리 극락 정토에(조원행 작곡)', '동지불공(조원행 작곡)' 다섯 곡이 발표된다.

2부에서는 소프라노 김채령 · 유현주 · 이빛나 · 박소림, 테너 김주완, 바리톤 김재일, 소리꾼 이이화, 봉은사 남성합창단이 '그윽한 님(김대성 작곡)' 등 8곡을 선보인다. 이 중 '우담바라 꽃송이 활짝 피었네(이종만 작곡)'는 함현 스님이 지난 6월 원적에 든 연관 스님과의 인연을 떠올리며 추모의 마음을 담아 작사한 곡이다.

3부에서는 연합 합창 무대로, 무디따 합창단 솔리스트, 봉은사 남성합창단이 '함현자계(김대성 작곡)', '부처님 오셨네(김대성 작곡)', '회향(김대성 작곡)'을 노래한다.

함현 스님은 "이태원 참사,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 국내외적으로 큰 재난과 감염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너무 많아 마음이 아프다"면서 "2600여 년 전 중생의 고통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 시기에 찬불가 발표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치유와 위안을 주고 싶다"고 이번 발표회의 취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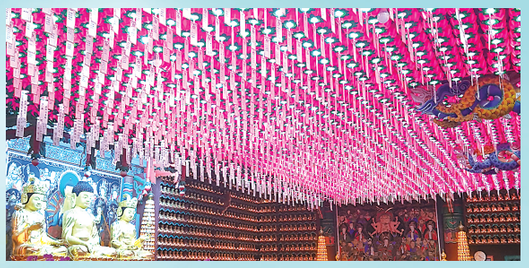
신곡 모두를 작사한 함현 스님은 속리산 법주사에서 월암당 이두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송광사, 백양사, 극락선원, 대승사, 동화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주지, 청주 관음사 주지, 제천 고산사 주지, 지리산 선화사 주지를 역임했고, 현재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 북한산 도솔선원에서 정진하고 있다. 저서로 〈숨길 수 없는 말〉(2004), 〈명사여운〉(2021), 〈머리 한 번 만져 보게나〉(2022), 찬불가 앨범집 〈천년의 향기〉(2015), 〈무디따〉(2020) 등을 펴냈다. 또한 군종특별교구 산하 군법당에 찬불가 CD를 기증하고, 풍경소리 찬불가 앨범 발매를 후원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전국 사찰 합창단이 참여하는 제1 · 2회 도솔불교합창대회를 개최하는 등 음악을 통한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02)351-4422 박재완 기자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